

‘미분양’ 정부 매입 광주만 홀대

적체 물량 전국 8위 불구 매입량은 ‘꼴찌’

土住公 “신청 건설사 적고 민원 많다” 핑계

정부의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가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매입 규모가 적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8~2009 미분양주택 매입실적’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광주에서 1개단지 1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입대했다. 매입 규모는 162억5천962만8천원이다.

토지주택공사의 광주 미분양 매입 물량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 13개 시·도 가운데 최저치로, 그나마 올해는 단 한 가구도 매입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지난 8월 광주 미분양 물량은 6천799가구.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제외하면 충북(6천277가구)·전북(3천899가구)·전남(5천376가구)·대전(3천150가구)보다 많다.

반면, 미분양 매입 규모로는 충북(5개단지 383가구·금액 397억9천674만7천원)·전북(4개단지 330가구·312억 1천390만1천원)·전남(5개단지 714가

구·748억5천907만8천원)·대전(2개단지 123가구·161억6천610만8천원)보다 적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광주의 미분양 물량이 1만2천384가구로, 대구(2만1천379가구)·경남(1만7천107가구)·경북(1만6천106가구)·충남(1만5천918가구)·부산(1만3천997가구)에 이어 6번째로 많았던 반면, 매입 규모는 가장 적었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 및 매입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는 건설사의 매입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광주의 경우 유독 신청 건설사가 적은데다, 매입 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권 손실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한 점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입주민들의 반발로 매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건설사가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08~09 미분양주택 매입실적 (지역별, 평형별·09.9.30 기준)

지역별	단지수	매입호수	
		60㎡이하	60~85㎡
합계	65	6,345	5,333
부산	2	434	434
대구	7	520	520
광주	1	100	100
대전	2	123	123
울산	3	242	156
강원	9	723	723
충북	5	383	347
충남	5	332	332
전북	4	330	180
전남	5	714	648
경북	10	835	542
경남	12	1,609	1,228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구분	08.12	09.08
계	165,599	133,779
서울	2,486	1,960
부산	13,997	11,451
대구	21,379	17,920
인천	1,647	1,664
광주	12,384	6,799
대전	3,802	3,150
울산	9,569	7,769
경기	22,795	19,738
강원	10,581	8,577
충북	6,412	6,027
충남	15,918	14,595
전북	4,617	3,899
전남	6,530	5,376
경북	16,106	13,582
경남	17,107	10,948
제주	269	324
수도권	26,928	23,362
지방	138,671	110,417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면서 “납득할만한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신청 건설사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내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39회 대한민국 공예 명품대전’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대한민국 공예 명품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입상작들을 둘러보고 있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명품대전에는 대통령상을 받은 박영준씨의 ‘은칠보 전통합’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양계승씨의 ‘화로와 치료’, 김봉상씨의 ‘해조’ 등 248개 작품이 선보인다. 별도로 설치된 광주시 특별전시관에서는 광주지역 인강문화재, 명장, 명인들 작품 140여 점과 전통부채 60여 점이 전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네슈퍼 경쟁력 강화 6천억 투입

‘중소소매유통본부’ 설치 물품 공동 구매... ‘스마트샵’ 1만개 육성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슈퍼마켓 공동구매체 구축, 물류비 절감, 스마트샵 육성 등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총 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소매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슈퍼마켓의 구매력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유통·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중소소매 유통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소매 유통본부는 전국 5만여 개 슈퍼마켓을 대항해 제조업체와 구

매협상을 하는 공동구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도입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라면, 캔커피, 생수, 소주 등 슈퍼마켓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높고 판매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된 물품은 전국 155개 공동구매센터에서 배송을 일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물류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농협과 협약을 맺고 전국 13개 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을 일반 슈퍼에도 유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마트샵=판매정보 시스템(POS)을 비롯해 직원복장·교육 상태, 상품진열·배치 등 서비스와 시설 측면에서 대형마트나 SSM과 동등한 수준의 슈퍼마켓.

또 대형유통업체와 대등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동네슈퍼인 ‘스마트샵’을 2012년까지 1만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샵 지원단’을 구성해 선정된 시범 점포에 대한 상권정보 분석, 간판 등 시설개선과 상품진열 및 재고관리 등 종합적인 컨설팅이 실시된다.

/연합뉴스



光銀, 中 교통은행서 5천만달러 차입

광주은행은 7일 본점에서 중국의 교통은행과 ‘미화 5천만달러 차입 및 국제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중국 교통은행 남관형 한국대표를 비롯한 교통은행 관계자와 열봉란 광주주재 중국 총영사, 이경표 부영사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중국의 5대 은행인 교통은행으로부터 미화 5천만달러를 2년간 차입하고 앞으로 국제금융 분야에서 교통은행과 다양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광주은행은 중장기 운전자재원 조달비용 등 감득 당국의 외화 유동성 관련 비율들을 모두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지난해 9월 29일 홍콩에서 해외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5월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현지를 방문해 ING은행과 도이체은행 등으로부터 총 1억3천만달러의 외화 차입에 성공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아파트 경매시장 활기

평균 응찰자 수 3배 늘어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달 광주 아파트 경매시장은 평균 응찰자 수가 9명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5.2명)보다 많다. 또 지난해 같은 달(2.5명)보다 3배가 넘는데다, 지난해 응찰자 수(6.4명)보다 2.6명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매각 건수 82건 가운데 응찰자 수가 10명이 넘는 물건 수는 38건에 달했으며 경쟁률 1위는 북구 운암동 S아파트로 22명이 응찰했다.

경매 진행 물건 수는 총 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2건)보다는 줄어든 반면, 8월(138건)보다는 늘어났다.

낙찰가율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M아파트가 134%로 가장 높았고 북구

삼각동 M아파트는 103%로 2위다.

전남의 경매 진행 물건 수는 광안과 보성·화순 등의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나오면서 1천625건에 달해 8월에 비해 482건이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745건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598.00 (-0.44)
▼ 코스닥지수	491.37 (-3.05)
▲ 금리 (국고채 3년)	4.45% (+0.01)
▲ 원·달러 환율	1,170.50원 (+0.2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금호렌터카 매각 추진

금호아시아그룹이 최근 대한통운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키로 한 렌터카사업(이하 금호렌터카) 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는 금호렌터카를 제 3자에게 매각키로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인수업

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매각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금호렌터카는 대한통운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별도 법인으로 분사되는 개편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23.7%)를 달리고 있다.

전국에 160개의 지점 및 예약소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용 차량도 5만 여대에 달하며 지난해 업계 최초로 중국 베이징과 칭다오, 선양에 3개 법인과 4개 지점을 내는 등 매출 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인수 후보로는 렌터카 사업 확대나 신규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과 국내외 사모펀드(PEF)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The Great Tradition - KOS

퍼거래 푸른빛 물결!

KOS 주식회사 한때